

## “ 겸손의 길 ”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 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약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1344호] 2012년 11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 Chan Yoo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4:8-16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rue Teaching" ..... Rev. Euichang Kim
* Hymn .....	210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b>우리의 비전 (vision)</b></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p><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p>	<p><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p><b>선교사</b> 전광혜(사야시아), 이은준(김해정, 영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파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명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르산도, 수레시, 수바씩, 이경연, 일로롱, 비사누(뽀도, 보디소프, 린롱, 수관준(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선교)</p>
--	--

	<p>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

■ 시 18:1~2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순환적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순환구조란 에너지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에너지만 있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다면 당연히 힘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통하여 힘을 얻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의 힘이 먼저 들어오고서야 마음의 힘이 돋우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붙잡히나 되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1. 다윗이 의지하는 여호와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나이다” 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체휼하고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우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 18:2)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려면 그가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에 떨며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쏟아내는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론한 힘은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힘과는 다른 것으로 분명 하늘로부터 온 것일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힘은 영어로 Strength 라고 하며 한글에서는 강함이라 힘을 힘이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원은 ‘손을 붙들다’ 는 뜻의 ‘쉐체크’ 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질 것과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권했습니다.(엡 6:10-13)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엡 6:14-18)

2.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험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문다고 했습니다.(고후 12:9) 인간의 힘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사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사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시 84:5-7). 고라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성전 섬기는 일에서 제외시키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힘도 세상적인 힘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맺는 말**  
 하나님의 힘의 근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의 끈을 잡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운이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운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의지하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으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광권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0:7-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시 1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9(4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6:3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먼저 구해야 할 것”... 김광건 목사  
 \* 찬 송 Hymn .....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34:1-2 ..... 인 도 자  
 찬 송 ..... 339(365) ..... 다 함 께  
 기 도 ..... 김진달 집사  
 성 경 ..... 빌 1:12-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전화위복“ ..... 설 교 자  
 \* 찬 송 ..... 358(40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신화숙 권사  
 성 경 ..... 삼하 1:17-2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할 노래”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2)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샬롬 권사회 월례회 / 19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2.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9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2019년 흥해작전 참모회의 / 19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4. 학부모 기도회 / 25일(토) 새벽기도 후 102호
5. 가브리엘 찬양대 토요연습 / 25일(토) 오후 3시 101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4. 오늘 주일예배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광건목사님(서울장신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15. 동정                      이종운 원로목사는 5월20일(월)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학술신학세미나를 갖는다.</p> <p>◆ 결 혼                      1. 연도형 군(연두흙 성도, 윤여식 성도의 장남)과 박재영 양(9교구 박동우 집사, 백승경 권사의 장녀) / 5월25일(토) 오후 4시 엠플러스웨딩 4층 나린홀(2190-2500) / 3호선/분당선 도곡역 하차 4번 출구</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5명	336명	188명	1,399명	139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5/1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12일	헌 금	26,784,300	
	특별예배비		768,000
	교회학교운영비		510,000
	행 사 비		1,008,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85,650
	통 신 비		355,820
	차량유지비		388,060
	소모품비		390,800
	수선유지비		467,000
	식당운영비		1,426,840
	합 계	26,784,300	5,650,170